

WKBL 6개 구단 출사표 “타도 우리은행”

4시즌 연속 통합우승 차지 이번시즌 강력한 우승후보

이번 시즌 여자프로농구의 화두도 여전히 타도 우리은행이다. WKBL은 25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6~2017시즌 여자프로농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6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의 출사표를 들었다.

아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일제히 우리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2~2013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우리은행과 개막전을 갖는 삼성생명의 임근배 감독은 “내가 선수들을 대신해서 개막전 상대로 우리은행을 택했다. 우리 선수들이 많은 힘을 흘렸다. 맘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승후보 우리은행의 아성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신기성 신한은행 감독은 “우리은행이 가장 강한 우승후보 아니겠느냐”면서도 “반약 신한은행이 정상에 오른다면 선수들에게 시즌 후, 3개월의 휴가를 줄 것이다”고 약속했다.

청주 KB국민은행은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를 뽑아 다크호스로 평가받는다. 안덕수 국민은행 감독은 “박지수를 뽑아서 우리를 우승후보, 대항마라고 하는데 뽑지 못했다고 해도 우승후보”라며 “내가



우리은행 박태은이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K호텔 컨벤션 센터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6개구단의 선수들이 트로피에 손을 얹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박혜진, 신한은행 김단비, 삼성생명 박태은, KB스타즈 김가은, KEB외환은행 김기슬, KDB생명 이경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농구는 어디든 같다. 우승의 꿈을 이루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조직적인 면에서 앞서지만 우리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열정적으로 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용인 삼성생명의 박태은은 “토하면서 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며 “작년 개막전에서 우리은행에 졌다.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신한은행의 김단비는 “지난 시즌 7경기에서 우리은행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며 “우리은행에 이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5개 구단의 타킷이 된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은 “4회 연속 우승을 하면서 운이 좋았다. 우승은 증폭되는 맛이 있다. 놓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승을 노리겠다. 쉽지 않겠지만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규리그는 오는 29일 용인 삼성생명과 아산 우리은행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3월6일까지 진행된다. 팀당 7라운드 35경기씩 총 105경기가 열린다. /김민근기자

LPGA투어 시즌2승 이민지, 세계랭킹 15위로 상승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2승제를 거둔 호주교포 이민지(20·하나금융그룹)가 세계랭킹 15위에 올랐다.

25일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이민지는 평균 4.45점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2계단 상승한 세계랭킹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민지는 지난 23일 중국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블루베이 LPGA’에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태국의 에리아 쭈타누간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평균 13.34점으로 53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킨 가운데 10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다.

쭈타누간과 전인지(22·하이진트로이) 2, 3위를 지켰다. 렉시 톰슨(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김세영(23·미래에셋자산운용), 박인비(28·KB금융그룹), 장하나(24·BC카드), 박성현(23·넵스), 양희영(27·PNS참호) 등이 뒤를 이었다.

10위 이내에 한국 선수 6명이 포함됐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CMB 클래식에서 공동 10위에 오른 김시우(21·C대한봉운)는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51위로 한 계단 올라갔다. 한국 선수 중에는 안병훈(25·C그룹)이 39위로 가장 랭킹을 유지 중이다. /김민근기자

오승환, ‘스포팅뉴스’ 올해의 NL 신인왕 투표 5위

‘끝판 대장’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팅 뉴스’의 메이저리그(MLB) 내셔널 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5위에 올랐다.

스포팅 뉴스는 25일(한국시간) 올해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스포팅 뉴스는 1946년부터 양대리그 올해의 신인왕을 선정해 수상했다.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상이다. 올해 내셔널리그에서 176명의 선수가 투표에 나선 가운데 오승환은 3표를 받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프로야구와 일본프로야구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인 올해 76경기에서 79%이닝을 던지며 6승과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LA 다저스의 코리 시커가 143표를 얻어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왕’로 선정됐다.

트레이 터너(워싱턴), 마에다 겐타(LA 다저스), 트레버 스톨리(콜로라도)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마이클 폴머(디트로이트)가 164표 가운데 61표를 얻어 ‘올해의 신인’으로 뽑혔다.

타일러 나킨(콜리블랜드), 개리 산체스(뉴욕양키스), 노마 마자라(텍사스), 팀 앤더슨(시카고)이 2~5위를 차지했다. /김민근기자

스타들, “취미를 넘어 프로에 도전”

김수현·이홍기 프로볼러 도전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프로볼러에 도전장을 던져 화제다. 비빔 스케줄 속에서 틈틈이 여가활동으로 볼링을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진지한 자세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 놨다.

김수현은 지난주 한국 프로볼러 남자 22기 선발전 1차 실기에서 114명의 참가자 가운데 31위에 올랐다. 수준급 실력이다.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의 보컬 이홍기도 이번 선발전에 참가해 2차 평가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듯 연예인들 중에는 취미로 운동을 시작하다가 전문 선수들과 당당히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이들이 있다.

이들의 도전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단순 스포츠를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스포츠 영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을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단박극 출연을 위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한 3년 만에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의 실력을 뽐낸 배우 이시영은 복싱의 매력에 빠져 동호인 수준의 대회에 출전한 뒤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실업팀 인천시청에 입단해 전문선수와 연기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학업에 몰두하고 취업 준비에 지쳐 신체활동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그만큼 안된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취미활동을 뛰어 넘어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프로스포츠에 몰려 있던 미디어의 관심 또한 연예인들의 이색 도전으로 인기 아마추어 종목이나 동호인 체육을 조명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홍보 효과도 볼록이 누릴 수 있다.

이런저리 아재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가 이상시 하는 연예인들이 동호인 수준이 아닌 정식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은 생활스포츠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본인이 있음에도 여가 선용을 해서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켜 도전하는 모습은 성취감을 자극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프로볼러에 도전장을 던져 화제다.

메시·호날두 등 2016 발롱도르 후보 30명 공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등 2016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에게 수여하는 2016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이 공개됐다.

프랑스 풋볼 매거진은 25일(한국시간) 2016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노리는 메시와 2014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최고 선수를 기대하는 호날두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을 차지한 레스터시티의 리야드 마레즈와 제이미 바디가 후보에 포함됐다.

루이스 수아레스, 네마르(이상 바르셀로나)와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르히오 아구에로(맨체스터 시티),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